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최 호 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Indian Traditional Clothing in Fashion Design of the 21st Century

Ho-Jeong Choi

Ph. 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10. 20 투고)

ABSTRACT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Indian traditional clothing in fashion design of 21st century by comparing 1,286 fashion items designed by Indian designers and 722 Western fashion items, which were presented from 2000 S/S to 2005 F/W. Formal analysis were made for change in how to wear clothes, and change in items and ornaments. Change of traditional clothing was found in two ways; Western elements added to Indian tradition and Indian traditional image adopted in Western clothing.

First, Indian traditional elements added to Western clothing in the formal aspect was found in 83% of Western collections and 27.2% of the Indian designers' collections. In Indian designers' collections, traditional clothing form takes 72.8%, which show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dia where the traditional clothing is still adhered to in daily life especially by women.

Second, from the fashion design of the Indian designers, we can find modernization of sari, change of traditional items into more active and modern way by adding Western clothing; change of form, color and material of traditional items in various ways; and decorative aspects highlighted by adding Indian traditional color, pattern or decoration into Western clothing. In most cases, Western collections are seasoned with Indian traditional image, rather than utilizing the form of Indian clothing. Although adopting the form of Indian traditional clothing, it can be considered as a transl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West.

Third, Indian look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by reproducing Indian traditional ornaments such as earrings, bracelets and henna, or by adopting Indian traditional fabric design and decoration in mufflers, bags and etc.

Key words: globalization(세계화), ethnic fashion(에스닉 패션), Indian traditional clothing(인도 전통 복식), Indian traditional ornaments(인도 전통 장신구)

I.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의식주를 중심으로한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던 다양한 전통적 구조가 변화되고 맥도날드, 피자헛, 리바이스 등 초국적 기업의 상점들이 모든 도시마다 생겨나고, 최신 패션은 TV와 잡지, 그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정체성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세계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세계화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제3세계로 분류되었던 비서구 지역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이후 자문화(自文化)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세계안에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출하려는 변증법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렇듯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자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역사성과 지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힘입어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의 결과이다.²⁾

복식은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양상으로 문화체계의 일부이며, 문화적 전통의 한 표현 현상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민속 복식은 민족 고유의 미의식이 표현되어진 것이고, 복식은 그 시대의 사고와 느낌을 표현하며 그 시대의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 자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민족 정체성의 요소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패션 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2000년 이후 비서구권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컬렉션에 진출한 비서구권 디자이너들의 패션디자인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전통의 현대화 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도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동양과 서양의 연결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세기에 걸쳐 이민족의 침입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오늘날까지도 인도 고유의 문화를 명백히 유지해오고 있으며 또한 인도에

서는 서구의 영향과 인도 고유의 문화 형식들을 성공적으로 혼합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인도의 패션디자인은 2000년에 시작된 Lakme 패션 주간을 계기로 서구의 패션과 연결되면서도 인도 고유의 미의식을 계승하는 모범적인 예를 제공한다. 지난 5년 동안 인도의 디자이너들은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왔다. 인도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Ritu Kumar는 서구 스타일의 옷을 원하는 인도의 현대 여성들을 위한 의상을 디자인하고 있지만, 인도 전통 복식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도 전통 복식과 오늘날의 트렌드가 혼합된 스타일로 자국 고유의 문화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적인 패션을 따르고 있다. 그녀의 최고의 영예는 1997년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 중이던 다이애나비가 Ritu Kumar의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다이애나가 이 의상을 런던에 있는 Ritu Kumar의 샵에서 구매한 것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많은 고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과 2004년의 밀란노 컬렉션에 등장한 Tarun Tahiliani와 Sabyasachi Mukherjee, 2004년 미국 마이애미 패션 주간에서 Rina Dhaka가 Designer's Choice 상 수상, 싱가포르 패션 주간에 참가한 Rajesh Pratap Shigh, Kavita Bhartia 그리고 Sonal Dubal 등 인도 디자이너의 활약은 인도 패션의 세계화에 대한 증거이다. 이외에도 Malina Ramani, Manish Arora와 같은 인도의 젊은 디자이너들 역시 세계적인 보편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는 동시에 인도의 전통적인 패턴과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³⁾

인도의 복식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경우 이은임(2001) 인도복식의 정신 문화 연구, 명은주(1993) 인도 복식과 문화에 관한 연구의 경우 인도 전통 복식의 종류,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영주(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품에 관한 연구의 다수의 인도 복식에 관한 연구의 경우 서구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구의 디자이너가 컬렉션에서 표현하는 에스닉 패션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에스닉 복식의 전통 즉 진정한 의미나 조형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에스닉 트렌드에 따른 이미지의 차용으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면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자국 디자이너들의 자문화의 세계화 경향을 표현하는 복식 스타일과는 그 의미가 다르나 혼용하여 분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인도 전통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인도 디자이너가 전통복식의 요소를 현대화하여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스닉 패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도 전통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2000년 이후 인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인도 디자이너들의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한 전통복식의 활용을 고찰하고 이를 서구 컬렉션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서구 디자이너 컬렉션과 인도 디자이너들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인도 전통복식의 활용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여 인도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 경향에 대한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도 패션 디자이너들의 지역/글로벌, 서양/동양, 전통적/현대적 등과 같은 이분법을 거부한 작품들에서 표현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정체성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인도 전통복식의 세계화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도 전통 복식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21세기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과 서구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복식의 활용 사례를 형태와 장신구의 영역으로 나누어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도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도 전통 복식의 세계화의 의미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인도와 문화에 관련한 국내의 서적과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한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위해 2000 S/S에서 2005 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사례

722점, firstview.com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색된 인도 디자이너의 같은 시기 컬렉션중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디자인 1286점을 비교·분석 연구하였다.

II. 인도 전통 복식

1. 전통복식의 종류 및 특징⁴⁾

인도는 남부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 인도의 고대문화 지역은 인도·파키스탄에서부터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일부까지를 포함한 인도아 대륙 전역에 걸쳐있다. 인도는 열대 및 아열대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속하며, 유사 이래 여러차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종·종교를 비롯한 사회적 구성이 지극히 복잡하며, 의복 역시 전체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BC 326년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공으로 시작된 그리스·로마의 영향은 AD150년경부터 표면화되어 카프탄(caftan) 양식의 외의 대신에 토가(toga)와 비슷한 옷을 입게 되었다. 이것이 인도 「사리(sari)」의 기원이다. 무굴(Mughul) 제국 시대에는 이슬람교도의 지배기간으로 화려한 코트와 좁은 바지·터번등 페르시아풍이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현재 인도 의상의 기본을 이루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오랜 인도 역사의 산물이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그의 전통적인 식민지 정책으로서 분할통치를 했고, 이러한 갈등 상태를 분할통치에 이용하였으므로 그들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졌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과 힌두교도인 인도로 분리되면서 인도의 전통복식은 힌두교도 복식의 영향이 더욱 짙어지게 된다.⁵⁾

인도 여성의 전통 복식은 사리(Sari) 혹은 오드니(Odhni)와 초리(Choli)와 가그라(Ghagra), 샤르와르(Shalwar) 혹은 주디다르(Chudidar)와 구르다(Kurdha)의 배합으로 대별한다. 사리는 가장 잘 알려진 여자의 복식으로 초리와 가그라를 입은 후에 착용하게 되는데 착용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어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더한다. 그

외에도 튜닉형의 쿠르다와 샤르와르나 주디다르와의 장착등 여러 가지 형태가 공존하며, 복식뿐 아니라 다양한 염색과 직물 디자인, 장신구등 인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1) 사리 (Sari)

인도인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사리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인도의 여성복으로 민속의상으로서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의 서북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퍼져있고 인도 민속복식을 대표하는 가장 우아한 아름다움을 갖는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흰두고 여자가 입는 것으로서 재료로는 블랙 프린팅(block printing)된 면이나 화학섬유·실크류가 사용되고 고급은 금은색의 자수나 가장자리 장식이 되어있다. 사리의 펼친 모양은 폭 90~120cm, 길이 450~1,100cm 가량의 직사각형이며 한 장으로 된 커다란 천인데, 이것을 허리에서 주름을 잡아준 다음 몸에 둘러감은 후 나머지를 머리에 덮거나 또는 어깨에 걸쳐 위로 흐르게 해서 입는다. 이렇게 착용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천에 불과한 것을 훌륭한 의상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사리는 착용자가 소속된 종족이나 지위, 카스트 등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직물의 종류, 색상과 문양의 선택등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하며, 계층에 따라 입는 모양이나 색까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리의 끝 가장자리 무늬는 군가트(Ghungat)라고 하며 문양은 동식물 중에서 코끼리, 공작, 연꽃, 망고, 들소, 나무등을 사용한다. 초리와 가그라를 입고 그 위에 사리를 입게 되는데, 직사각형의 천을 허리에서 주름을 잡아준 다음 몸에 둘러 감은후, 나머지를 머리에 덮거나 또는 어깨에 걸쳐 뒤로 흐르게 해서 입는다.⁶⁾ <그림 1>

2) 초리 (Choli)

초리는 허리를 노출하는 짧은 상의로서 가그라와 함께 사리를 입기 위한 기초의상이며 가슴을 받쳐주는 브래지어 역할도 한다.⁷⁾ 초리는 대개 반소매

가 달린 형태로 허리가 노출되고 배꼽이 드러나는 형태이나 간혹 소매가 달려거나 소매가 없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앞부분만 가리고 등이 노출되며 배꼽과 허리가 드러나는 짧은 상의로써, 옷아래에 달린 끈을 조여 입는 형태였다. <그림 2>

3) 가그라 (Ghagra)

근래에 입게된 가그라는 홍색세틴으로, 치맛자락에 은라메를 배치시킨 아름다운 것이다. 본래 가그라는 넉넉하게 만들 약간 긴듯한 스커트로 모란색(홍자색)에 녹색의 단 장식 배색하기를 좋아한다. 가그라는 패티코트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며 끈으로 허리에 묶거나 은벨트를 하기도 한다. 스커트는 평상복으로는 백색목면을 사용하고, 길이는 복사뼈까지 오게하며 허리를 고무줄로 넣은 끈이나 면테이프로 묶는다. 브로케이드 등으로 장식된 스커트의 밑단은 매우 독특하다.⁸⁾

4) 샤르와르(Shalwar), 주디다르(Chudidar)

샤르와르와 주디다르는 폭이 매우 넓은 바지의 일종이다. 샤르와르는 허리는 매우 넓고, 넓은 폭을 발목에서 가늘게 좁힌다. 이것은 터어키식 하렘 팬츠의 변형으로 두껍게 자수를 놓은 면레이스를 도련에 대기도 한다. 주디다르는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타이트하게 되어 바지가랑이가 높아지게 된 형태이다.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넓고, 그 아래는 장단지까지 꼭맞게되어 복사뼈(chudis ; 주디스) 부근에서 수평으로 주름이 잡힌다. 주디다르라는 명칭은 바로 이 복사뼈에서 나왔다고 한다.⁹⁾ <그림5, 6>

5) 쿠르다 (Kurdha)

쿠르다는 길고 느슨한 튜닉형 겉옷으로, 바지인 샤르와르나 주디다르와 함께 입는다. 왼쪽 겨드랑이에 단추나 고리를 사용하려 잠그게 되어있고, 허리에는 2개의 다아트가 있어 몸에 맞게 해준 옷이다. 무릎길이가 대부분이며 양옆에 30cm 정도의 트임을 주어 활동하기 편리하게 했으며, 목에 라운드나 스퀘어가 많고 가장자리에 수를 놓기도 한다. 쿠르다는 고대 그리이스 키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3, 7>

6) 오드니 (Odhni)

초리와 가그라를 입고 그 위에 오드니를 살짝 머리에 걸쳐 쓴다. 이것은 이슬람 여성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쓰개류로 길이나 폭이 사리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기호에 따라 가지각색의 화려한 색의 견이나 목면이 사용된다.¹⁰⁾ <그림 3>

7) 코트(Coat)

이슬람 세력의 침입은 여성복식보다 남성복식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궁중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체의 상의에 도티만을 걸쳤던 의상에서 상·하부를 피복하는 코트가 긴바지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유럽 열강의 도래 이후 서양복식이 도입·변용되어 오늘날

에 이르는 복식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인도 전통 복식에서 코트는 대부분 남성들이 착용하며, 그중에서 아츠크안(Achkan)은 무굴제국의 자마(Jama)라는 코트에서 발달한 것이고, 샤르와니(Sherwan)는 영국의 코트에서 영향을 받아 서구화된 옷이다. 동부인도에서는 밴드 칼라에 좁은 소매가 달린 무릎길이의 몸에 잘 맞는 튜닉형의 상의를 입는데, 이것을 초가(Chog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린넨을 이용하여 만들지만 특별한 행사시에는 화려한 브로케이드로 만든 것을 입기도 한다.¹⁸⁾

8) 장신구

인도민속의상에서는 남녀모두 장신구가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머리장식,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마벨트, 반지, 가슴장식, 팔찌, 발찌, 상완장식등 어느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특히 코걸이를 다



<그림1> 사리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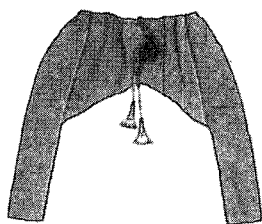
<그림2> 솔리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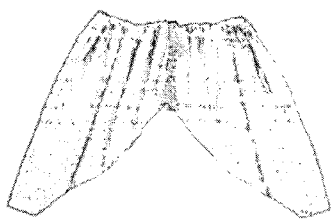
<그림3> 오드니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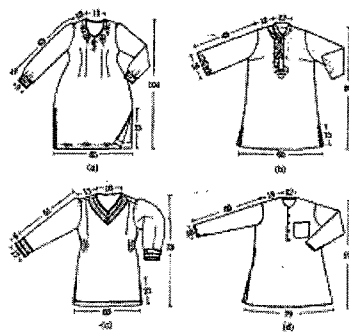
<그림4>장신구¹⁴⁾



<그림5> 주디다르¹⁵⁾



<그림6> 샤르와르¹⁶⁾



<그림 4-43> 인도의 kurda 정면도.

<그림7> 쿠르다¹⁷⁾

는 것은 흰두교의 습관이었으며, 조개껍질로 만든 팔찌도 역시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장신구 중의 역시 이러한 종교적 의미를 가진 장신구중의 하나이다.

목걸이는 목주위에 느슨하게 매는 Necklace(Haras)와 목에 딱맞는 Necklet(Kanthis)로 구분된다. 여러 줄로 된 Necklace에서는 한줄은 목에 딱맞고 나머지는 점차 길어지면서 가슴에 드리워지는데 어떤 것은 배꼽위까지 온다. 이것은 장신구가 단지 장식품만이 아니라 의복의 일부로 차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이나 은 혹은 다양한 비즈(Beeds)를 사용하였으며 보석으로 장식했다. 또한 인도인들은 손목과 상완에도 즐겨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여러줄의 금속으로 된것이나 상아, 나무 등을 이용했으며, 손목에서부터 손가락에 연결되는 하드풀(Hathphool) 손가락 반지도 인도 전통의 장신구이다.

혼례시에는 헤너(Henna)물감으로 손에 페인팅을 하였는데, 신부를 의미하는 이 무늬는 수주일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헤너 장식을 한위에 하드풀을 끼게 된다. 머리에는 Sarpech(터어번 장식)을 쓰거나, 여러줄의 진주나 구슬, 보석등으로 만들어진 가는 밴드를 착용하였으며, 또한 허리에는 여러줄의 보석이나 진주 혹은 체인으로 된 허리띠를 착용한다.¹⁹⁾ <그림 4>

Ⅲ.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1.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1) 디자이너 선정 및 인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인도 패션 디자이너들의 리스트는 firstview.com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43명의 인도 디자이너가 검색되었다. 검색 결과 대부분의 인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진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이후이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각의 디자이너 컬렉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재도 여성복에서 전통복식을 고수하고 있는 인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인도 디자이너들은 컬렉션에서 전통 복식의 요소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현대적 미의식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인도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체 컬렉션 중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디자이너는 <표 2>와 같다. 전통복식을 활용한 디자인 사례에 있어 형태적인 측면은 크게 착장방식의 변화와 아이템별 변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인도 전통 복식의 중요한

<표 1> 인도 디자이너 리스트

| 인도 (43명) | | | |
|-----------------------|---------------------------------|--------------------------|----------------------------|
| ▶Abhishek Gupta (10) | ▶Ashish Soni (3) | ▶Monish Jaising (2) | ▶Ritu Kumar (2) |
| ▶Anait Biant (1) | ▶Cue by R Gandhi & R Khanna (2) | ▶Neelam Saxena (2) | ▶Sabyasachi (3) |
| ▶Anant (2) | ▶Deepika Govind (2) | ▶Neeta Bhargava (1) | ▶Mukherjee |
| ▶Anand Jon (5) | ▶Geisha Designs (2) | ▶Niki Ebene (1) | ▶Shantanu and Nikhil Mehra |
| ▶Anjana Bhargav (1) | ▶Kotawara (2) | ▶Poonam Bhagat (1) | ▶Suneet Varma (1) |
| ▶Anju Modi (2) | ▶Malini Ramani (2) | ▶Pria Kataria Puri (2) | ▶Swapan and Seema (2) |
| ▶Anshu Arora Sen (1) | ▶Mandira Wirk (1) | ▶Priyadarshini Rao (2) | ▶Varun Bahl (1) |
| ▶Aparna Chandra (1) | ▶Manish Arora (2) | ▶Puja Nayyar (2) | ▶Jattin Kochhar (2) |
| ▶Aparna Jandari (1) | ▶Manju and Bobby Grover (1) | ▶Raghuvendra Rathore (2) | ▶Anamika Khanna (2) |
| ▶Araiya (1) | ▶Monapali (2) | ▶Rajesh Pratap Singh (2) | ▶Studio Valaya |
| ▶Ashima and Leena (2) | | ▶Rina Dhaka (2) | |
| ▶Ashish Pandey (2) | | | |

()의 숫자는 해당 디자이너의 2000년 이후 컬렉션 출품 횟수를 표시한다.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요소이고,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인도풍 복식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장신구를 형태와 함께 살펴보았다.

2000 S/S에서 2005 F/W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전체 디자인

<표 2>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인도 디자이너

| 디자이너 | 인도 (43명중 39명) | | | | | | | | | | | | | |
|----------------------------|---------------|-------|-------|-------|-------|-------|-------|-------|-------|-------|-------|-------|--|--|
| | 00 SS | 00 FW | 01 SS | 01 FW | 02 SS | 02 FW | 03 SS | 03 FW | 04 SS | 04 FW | 05 SS | 05 FW | | |
| Abhishek Gupta | | | | | | | ✓ | | | | | | | |
| Anant | | | | | | | ✓ | | | ✓ | | | | |
| Anand Jon | | ✓ | ✓ | ✓ | | | | ✓ | | | ✓ | | | |
| Anjana Bhargav | | | | | | | ✓ | | | | | | | |
| Anshu Arora Sen | | | | | | | ✓ | | | | | | | |
| Aparna Chandra | | | | | | | ✓ | | | | | | | |
| Aparna Jandari | | | | | | | ✓ | | | | | | | |
| Anju Modi | | | | | | | ✓ | | | ✓ | | | | |
| Araiya | | | | | | | ✓ | | | | | | | |
| Ashima and Leena | | | | | | | ✓ | | | ✓ | | | | |
| Ashish Pandey | | | | | | | ✓ | | | | ✓ | | | |
| Ashish Soni | | | | | | | ✓ | | | ✓ | | | | |
| Cue by R Gandhi & R Khanna | | | | | | | ✓ | | | ✓ | | | | |
| Deepika Govind | | | | | | | ✓ | | | ✓ | | | | |
| Geisha Designs | | | | | | | ✓ | | | ✓ | | | | |
| Kotawara | | | | | | | ✓ | | | ✓ | | | | |
| Malini Ramani | | | | | | | ✓ | | | ✓ | | | | |
| Mandira Wirk | | | | | | | ✓ | | | | | | | |
| Manish Arora | | | | | | | ✓ | | | | | | | |
| Manju and Bobby Grover | | | | | | | ✓ | | | | | | | |
| Monapali | | | | | | | ✓ | | | ✓ | | | | |
| Monish Jaising | | | | | | | ✓ | | | ✓ | | | | |
| Neeta Bhargava | | | | | | | ✓ | | | | | | | |
| Poonam Bhagat | | | | | | | ✓ | | | | | | | |
| Pria Kataria Puri | | | | | | | ✓ | | | ✓ | | | | |
| Priyadarshini Rao | | | | | | | ✓ | | | ✓ | | | | |
| Puja Nayyar | | | | | | | ✓ | | | | | | | |
| Raghuvendra Rathore | | | | | | | ✓ | | | ✓ | | | | |
| Rina Dhaka | | | | | | | ✓ | | | ✓ | | | | |
| Ritu Kumar | | | | | | | ✓ | | | ✓ | | | | |
| Sabyasachi Mukherjee | | | | | | | ✓ | | | ✓ | ✓ | | | |
| Shantanu and Nikhil Mehra | | | | | | | ✓ | | | ✓ | | | | |
| Suneet Varma | | | | | | | ✓ | | | | | | | |
| Swapan and Seema | | | | | | | ✓ | ✓ | | | | | | |
| Varun Bahl | | | | | | | | | | ✓ | | | | |
| Jattin Kochhar | | | | | | | ✓ | | | | | | | |
| Anamika Khanna | | | | | | | ✓ | | | | | | | |
| Studio Valaya | | | | | | | ✓ | | | | | | | |

☐ : 컬렉션 출품 시즌, ✓: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 사례가 나타난 시즌

〈표 3〉 인도 패션디자인에서의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별 활용 비율

(2000 S/S~2005 F/W)

| 구분 | 전통 복식의 현대화 | | 서구 복식에 전통 복식 요소 가미 |
|-------|------------|-------------------|--------------------|
| | 사리의 변형 | 전통복식과 서구적인 복식의 접목 | |
| 총1286 | 352 | 584 | 350 |
| (%) | 27.4 | 45.4 | 27.2 |

수는 총 1286점이었으며, 인도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난 인도 전통복식의 형태별 활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은 첫째, 인도 전통 복식의 현대화 경향으로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가 추가되고 서구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와 둘째, 서구 복식에 인도 전통의 요소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두가지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경우 인도 전통복식과 서구적인 복식의 접목을 통한 절충 형식이 총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전통복식을 고수하고 있는 인도 의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듯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의 변형이 27.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요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인도 여성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인 사리의 현대화 경향, 착장 방식의 변화, 아이템별 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사리의 현대화 경향은 사리의 두르는 방식을 간소화하여 복잡한 착장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전통적인 형태를 계승하면서도 활동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도 전통 색상 이외에 다양한 컬러를 도입하거나 현대적인 프린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재는 여전히 인도 전통 사리의 소재인 면직물과 견직물이 다수를 차지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인도 전통 복식인 사리의 현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리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움과 사리의 가장 큰 특징인 드레이프를 살린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리, 가그라와 함께 착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는 서구 컬렉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향이며,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서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27.4%를 차지하는 인도 패션 디자인만의 특성으로 비증있는 경향이다. 둘째, 착장 방식의 변화는 쿠르다에 샤르와르나 주디다르 대신 서구적인 팬츠의 코디, 사리와 초리 대신 서구적인 재킷이나 니트에 가그라의 코디 등 전통적인 아이템에 서구적인 복식을 접목시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착장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서구 복식과 인도 전통 복식의 절충 양상으로 표현된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인도 전통 복식과 서구복식의 접목으로 케주얼하고 스포티함이 가미되면서 인도 전통 복식의 현대화된 새로운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서구적인 복식에 인도의 전통적인 색채나 문양, 장식기법 등을 접목시켜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다. 서구 복식에 도입된 인도의 전통적인 염색기법이나 자수기법 등 장식적인 요소는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인도의 자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는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착장 방식의 변화 이외에 사리, 초리, 가그라, 샤르와르·주디다르, 쿠르다, 오드니 등 전통 복식 아이템별 형태·색상·소재의 다양한 변형이 나타난다.

인도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아이템별 활용 비율의 경우 인도 전통 복식인 사리의 현대화 경향을 제외한 전통 복식과 서구적인 복식의 접목으로 나타나는 디자인 584점의 아이템별 활용 비율만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는 서구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별 활용비율과의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한 것으로, 아이템별 활용비율은 〈표 4〉와 같다.

전체 컬렉션에서 사리의 변형을 제외하면, 가그라와 쿠르다의 활용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며 가그라와 서구적인 재킷 등 서구적인 아이템과의 착장,

〈표 4〉 인도 패션디자인에서의 인도 전통 복식의 아이템별 활용 비율

(2000 S/S~2005 F/W)

| 구분 | 사리 | 초리 | 가그라 | 샤르와르/슈디다르 | 쿠르다 | 오드니 | 코트 |
|------|-----|------|------|-----------|------|-----|-----|
| 총598 | 13 | 111 | 192 | 21 | 216 | 4 | 41 |
| (%) | 2.2 | 18.6 | 32.1 | 3.5 | 36.1 | 0.7 | 6.9 |

쿠르다와 서구적인 팬츠와의 착장 등 착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실용성과 활동성을 가미한 인도 전통복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인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아이템 활용

(1) 사리(Sari)

전통의 사리는 복잡한 착장 방식, 두르는 방식을 간소화시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형시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나는 사리는 서구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인도의 사리의 형태를 응용하였으나, 스카프의 형태 등으로 변형하여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사리의 현대화 경향을 다양하게 표현하나 여전히 초리, 가그라와 함께 코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리의 현대화는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나는 인도 전통 복식과 서구 복식이 절충되어 나타나는 인도 전통 복식의 착장 방식의 변화와는 차별화되는 경향으로, 인도인의 자랑인 사리의 가치와 전통적인 의미를 반영한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만의 차별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베일의 일종인 오드니도 화려한 색상과 섬세한 자수와 문양등을 활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로 재창조되고 있다.

(2) 초리(Choli)

허리를 노출하는 짧은 상의인 초리는 전형적인 형태를 재현한 것 이외에 다양한 프린트나 자수, 비즈 등으로 장식하여 초리의 형태적인 단순함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표현한 것, 몸에 더욱 밀착되도록 스트레치 소재를 활용하는 등 초리의 전통적인 간결한 느낌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

타나고 있다. 착장 방식에서도 초리는 타이트한 스커트나 진팬츠, 혹은 인도전통의 가그라 형태의 폭넓은 스커트등과 코디네이션되면서 다양한 착장방식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복식과 현대복식의 절충을 보여준다.

(3) 가그라(Ghagra)

가그라는 넉넉하고 긴 스커트 형태, 브로케이드 등으로 장식된 스커트의 밑단 등 전통적인 가그라의 소재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초리 이외에 튜브탑이나 브라탑, 할터넥 또는 셔츠나 테일러드 재킷 등 서구적인 상의와 함께 착장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와 전통적인 소재나 컬러대신 모직물이나 단색의 직물등을 사용한다든지, 길이를 조금 짧게 하여 케주얼한 느낌을 표현하거나 짧은 층을 위한 데님 소재의 활용과 스커트 폭을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조금 좁게 표현하는등 다양한 변화 양상으로 활용된다.

(4) 쿠르다(Kurda)

길고 느슨한 튜닉형 겉옷 쿠르다는 전통적으로는 무릎길이가 대부분이나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힙(hip)을 덮는 길이로 길이를 짧게 하고 다양한 프린트, 소재의 사용과 미니스커트, 데님 등 케주얼한 착장방식을 도입하면서,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다수 등장한다. 목 가장자리에 수를 놓기도 하고, 소매통이나 길이 등도 자유롭게 변형하여 대표적인 전통의 케주얼화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케주얼하게 변형된 쿠르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쿠르다와 샤르와르의 착장 방식을 고수하는 다수의 디자인의 경우 인도 전통의 폭넓은 팬츠인 샤르와르 대신 서구화된 레깅스나 팬츠를 착용함으로써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활동성과 실용성을 피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5) 샤르와르(Shalwar) · 주디다르(Chudidar)

팬츠의 경우 폭이나 길이의 변화가 다양하며, 인도 전통의 주디다르나 샤르와르의 형태적 특성을 변형하거나 반영하기보다 서구적인 테일러드 팬츠나 레깅스 등을 쿠르다등과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현대적인 미적 감각과 인도 여성의 활동성을 고려한 변화가 나타난다.

(6) 코트(Coat)

전통복식에서 주로 남성복식으로 발달하였던 코트는, 복식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여성 복식에서도 다수 나타나며, 주로 장식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인도 전통직물디자인을 프린트 하는 등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으로 이는 과거 귀족을 중심으로 착용되었던 인도 전통 복식인 코트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장신구

인도는 풍부한 금, 은, 보석의 생산과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장신구 세공 기술이 발달해왔다.²¹⁾ 인도의 장신구는 노출이 심한 의복으로 인한

신체의 노출 부위를 가려주면서 동시에 단순한 의복의 형태 때문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인도인들에게는 생활의 필수품이었던 것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장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다.²²⁾ 장신구는 목걸이, 허리장식, 머리장식,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0 S/S에서 2005 F/W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장신구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인도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159점이었으며, 활용비율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는 인도 전통 장신구의 활용을 살펴본 결과 인도 전통복식에서 표현되는 장식의 다양함이나,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전통복식의 형태적 다양함에 비한다면 비중면에서 그리다수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장신구는 인도 전통의 화려한 목걸이, 허리장식, 머리장식등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면서 현대 패션디자인의 악세서리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인도의 전통적인 장신구의

<표 5> 인도 패션디자인에서의 인도 전통 장신구 활용 비율

(2000 S/S~2005 F/W)

| 구분 | 목걸이 | 허리장식 | 머리장식 | 기타 | | |
|-------|------|------|------|------|-----|------|
| | | | | 가방 | 스카프 | 기타 |
| 총 159 | 42 | 32 | 43 | 20 | 5 | 17 |
| (%) | 26.4 | 20.1 | 27 | 12.6 | 3.1 | 10.7 |



<그림 9> 인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²⁰⁾

계승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현대 복식에서 장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가방, 스카프 디자인에 인도의 전통적인 장식기법을 도입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인도의 전통 문화 요소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1) 디자이너 선정 및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인도 패션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 진출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세계 4대 컬렉션(파리, 밀란, 뉴욕, 런던)에서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디자이너를 조사하였다. 컬렉션 분석시 인도 디자이너는 제외하였으며, 분석결과 2000년 이후 컬

렉션에서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서구 디자이너의 리스트는 <표 6>과 같다.

2000 S/S에서 2005 F/W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722점이었으며,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별 활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은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를 활용하기 보다는 서구복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서구 복식에 인도의 전통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83%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컬렉션에서는 인도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현대화하기보다는 서구 복식에 인도 전통복식의 형태적인 특징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경우 소재나 컬러, 착장 방

<표 6>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디자이너

| | 2000 S/S | 00/01 F/W | 2001 S/S | 01/02 F/W | 2002 S/S | 02/03 F/W |
|----|----------------------------------|--|---|-----------------------|--|---|
| 파리 | Leonard, Isabel Marant | Celine, Leonard, Marcel Marrongiu | Dior, Dice Kayek | Joe Casely Hayford | | Isabel Marant, Ungaro John Galliano |
| 밀란 | Alberta Ferreti Etro | Philosophy, Etro | Etro Alviero Martini | Etro | Miu Miu, Etro | Gianni Versace, Etro |
| 런던 | Matthew Williamson | A.Scott Henshall, Margaret Howell, Matthew Williamson | Alexander Mcqueen Matthew Williamson | Ponit Zilkha | | Viktor & Rolf |
| 뉴욕 | Cynthia Rowley | Oscar de la Renta, Nicole Miller, Custo Barcelona | | | | Matthew Williamson Jill Stuart |
| | 2003 S/S | 03/04 F/W | 2004 S/S | 04/05 F/W | 2005 S/S | 05/06 F/W |
| 파리 | Dries Van Noten Isabel Marant | | Ungaro | | Ungaro, Galliano, Dries Van Noten, Linvin | |
| 밀란 | Gattioni, Ferragamo, Etro | Etro | Etro | Etro | Philosophy, Blumarine, Just Cavalli, Moschino, Gai Mattiolo, Etro | Miu Miu, Etro |
| 런던 | | | | | D Squared | |
| 뉴욕 | | | | | Oscar de la Renta | |

〈표 7〉 서구 컬렉션에서의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 비율

| 구분 | 인도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 서구 복식에 인도 전통 이미지 가미 |
|------|----------------|---------------------|
| 총722 | 123 | 599 |
| (%) | 17 | 83 |

〈표 8〉 서구 컬렉션에서의 인도 전통 복식의 아이템별 활용 비율

(2000 S/S~2005 F/W)

| 구분 | 사리 | 촐리 | 가그라 | 샤르와르/쥬디다르 | 쿠르다 | 오드니 | 큐트 |
|------|------|-----|------|-----------|------|-----|-----|
| 총140 | 34 | 9 | 34 | 8 | 43 | 5 | 7 |
| (%) | 24.3 | 6.4 | 24.3 | 5.7 | 30.7 | 3.6 | 5.0 |

식 등을 서구적인 해석에 의해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구복식의 형태위에 인도의 전통적인 염색기법이나 자수기법등 장식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영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 컬렉션에서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아이템별 활용비율은 〈표 8〉과 같다.

서구 컬렉션에서는 사리, 가그라, 쿠르다 등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사리의 경우 인도 전통 사리의 드레이프를 살렸으나, 스카프의 형태로 변형하는 다수의 경우와, 또한 인도 전통 복식의 아이템을 활용함에 있어 인도 전통복식의 형태를 차용하였으나 색상이나 소재를 서구적인 해석에 의해 변형하여 활용하는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풍 복식의 아이템 활용

(1) 사리(Sari)

사리의 형태를 응용하였으나, 스카프의 형태로 간소화하여 상의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인도 전통 직물디자인과 실크를 활용하여 인도 전통의 느낌을 살린 디자인과 모직, 쉬폰(chiffon), 가죽, 퍼(fur) 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으로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의 형태를 도용하였으나 형식만 남아있으며,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로 표현한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함에 있어 사리의 사선 형태의 드레이프를 활용하였으나, 블라우스의 형태로 변형한 다수의 사례가 나타난다. 오드니의 활용

은 다양하지는 않으나 이국적인 느낌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구 컬렉션에서 인도풍 의상을 표현할 때 후드의 형태로 변형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2) 촐리(Choli)

촐리의 길이를 변형하여 인도 전통의 촐리보다 길게 표현하거나, 촐리를 연상시키는 짧은 상의에 소매의 길이를 다양화하고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바디 라인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으로 나타난다.

(3) 가그라(Ghagra)

가그라는 인도 전통 가그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구적인 프린트를 도용하거나 쉬폰, 모직 등 다양한 소재의 사용이 다수 나타나며, 또한 가그라의 형태를 응용하면서도 다양한 길이로 새롭게 변형하여 표현하고 있다.

(4) 쿠르다(Kurdha)

서구 컬렉션에서 인도풍을 표현할 때 다수 나타나는 쿠르다는 전통적인 튜닉 스타일을 유지하고, 인도적인 색과 자수 등 인도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쿠르다의 케주얼화와 비교하여 오히려 인도의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쿠르다를 활용함에 있어, 쿠르다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복선의 파임이나 카라의 부착, 다양한 소매 디자인의 도입등 서구적인 해석에 의한 변형 또한 다수 나타난다.

(5) 샤르와르(Shalwar) · 주디다르(Chudidar) · 코트(Coat)

다수는 아니나 에트로 등의 컬렉션에서 인도 전통의 느낌을 유지하여 표현된다. 코트는 인도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4) 장신구

2000 S/S에서 2005 F/W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장신구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인도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133점이었으며, 활용비율을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서구 컬렉션에서는 주로 목걸이와 허리 장식이다수 나타나며 인도의 화려하고 다양한 전통적인 장신구를 악세서리로 착용한다. 또한 인도의 전통 장신구를 재현하여 표현하는 귀걸이, 팔찌, 헤나 장식등과 머플러나 가방 등에 인도 전통 직물 디자인이나 장식기법을 도입하는 등 장신구를 통해 인도 풍을 다양하게 표현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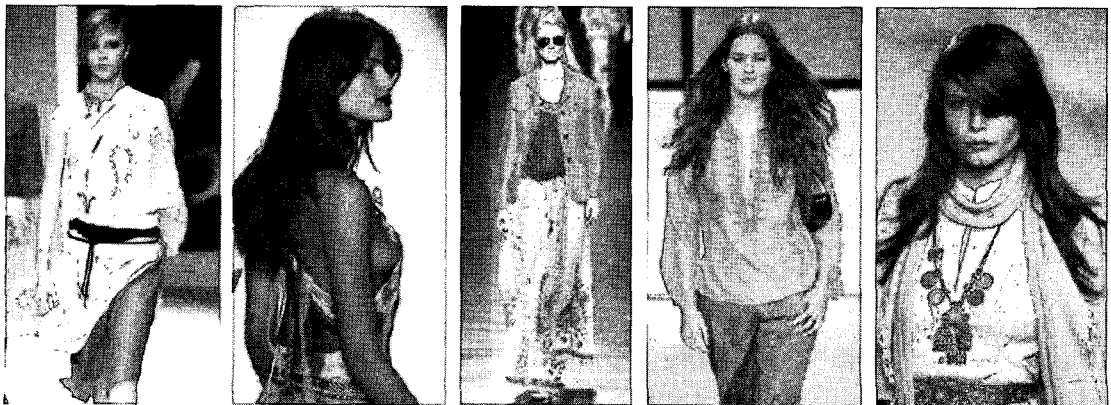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을 살펴보기 위해 2000 S/S에서 2005 F/W 서구 컬렉션과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형태는 크게 착장 방식의 변화와 아이템별 변화, 장신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통 복식의 활용은 크게 인도의 전통 복식의 형태가 추가되고 서구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경우와 서구 복식에 인도의 전통적 요소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세기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을 활용한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 1286점, 서구 컬렉션 722점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도 패션 디자인과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형태적인 측면은 서구 복식에 인도 전통 복식의 요소를 가미한 경우가 서구 컬렉션 83%,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 디자인 27.2%로 인도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서 특히 여성복에서 여전히 전통 복식을 고수하

<표 9> 서구 컬렉션에서의 인도 전통 장신구 활용 비율

(2000 S/S~2005 F/W)

| 구분 | 목장식 | 허리장식 | 머리장식 | 기타 | | |
|-------|------|------|------|------|------|-----|
| | | | | 가방 | 스카프 | 가타 |
| 총 133 | 33 | 43 | 2 | 27 | 17 | 11 |
| (%) | 24.8 | 32.3 | 1.5 | 20.3 | 12.8 | 8.3 |



<그림 8>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²³⁾

는 인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듯 인도의 전통 복식의 형태가 추가되고 서구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 활용이 7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은 사리의 현대화 경향, 전통적인 아이템과 서구적인 아이템의 절충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착장방식으로서의 변화, 전통 복식의 형태·색상·소재의 다양한 변형, 서구적인 복식의 형태위에 인도의 전통적인 색채나 문양, 장식기법 등을 접목시켜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다양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은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를 활용하기 보다는 서구복식에 인도 전통의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인도 전통복식의 형태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리의 경우 인도 전통 사리의 드레이프를 살렸으나 스카프의 형태로 변형하는 다수의 경우와 이외에도 인도 전통 복식의 형태를 활용하였으나 색상이나 소재의 적용 등에 있어서 서구적인 해석에 의한 다수의 변형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장신구의 경우, 인도 패션 디자인에서는 인도의 전통복식에서 표현되는 장식의 다양함이나,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인도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전통 복식의 형태적 다양함에 비한다면 비중면에서 그리 다수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구 컬렉션에서는 주로 목걸이와 허리 장식에서 인도의 화려하고 다양한 전통적인 장신구를 약세서리로 착용하며, 서구 컬렉션의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난다. 또한 인도의 전통 장신구를 재현하여 표현하는 귀걸이, 팔찌, 헤나 등과 머플러나 가방 등에 인도 전통 직물 디자인이나 장식기법을 도입하여 인도풍을 다양하게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색상과 소재의 경우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 디자인에서는 인도 전통의 흰색과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소재는 전통 복식에서 활용되는 견직물이나 면직물등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색상이나 소재를 기본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을 수용하여 전통을 현대화한 디자인 사











례가 다수 나타난다. 서구 컬렉션에서는 트렌드 컬러를 활용하고, 벨벳이나 모피(fur)등 다양한 소재를 도입하여 인도 전통 직물 디자인을 활용하였으나, 인도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서구 컬렉션에 나타난 인도풍 복식과 인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세계적인 트렌드로서의 인도 전통 복식의 활용 경향과 함께 인도 디자이너들을 주체로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한 인도 복식의 세계화 경향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 창조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에서는 서구컬렉션과 차별화되는 인도 전통 복식의 고수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는 전통 그대로의 고수가 아닌 세계화 경향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자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것으로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에서는 서구 컬렉션에 비해 자문화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인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 전통 복식의 미적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보편성에 맞는 독창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인도 디자이너의 패션 디자인과 서구 에스닉 패션과의 주목되는 차이점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변화와 응용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물이 아닌 사진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소재나 색상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인도 남성복식의 변화와 아울러 인도뿐 아니라 비서구로 분류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문화의 변화나 세계화 경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스닉 트렌드를 연구함에 있어 세계적인 트렌드의 하나로써뿐 아니라 자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전통성과 문화의 현위치를 표현하는 자국 디자이너

<표 10>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인도 전통 복식 활용사례 비교·분석

(2000 S/S~2005 F/W)

| 구분 | 인도 패션 디자인 | 서구 컬렉션 |
|--|--|--|
| 형태 | <p>사 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사리의 두르는 방식의 간소화, 현대화된 소재의 적용 등 사리의 현대화 경향이 다수 나타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리의 형태를 응용하였으나 스카프의 형태로 변형하는등 다수의 형태 변형이 나타남 ▶ 모직, 쉬폰, 가죽, 펄(fur)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  |
| | <p>초 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리에 프린트나 자수를 활용하여 장식적으로 표현,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바디 라인을 더욱 강조하는 등 현대화된 초리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남 ▶ 진펜츠나 미니 스커트 등과 매치하면서 다양한 착장방식의 변화로도 제안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리의 소매, 길이 등 형태변형,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바디라인 강조  |
| | <p>가 그 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그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재킷 등과 코디하는 착장 방식의 변화 ▶ 길이를 조금 짧게 하여 활동성을 살리는 등 형태상의 변화가 나타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그라의 형태를 활용하였으나 쉬폰, 모직 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 길이의 변형  |
| | <p>쿠 르 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린트와 소재를 활용하고 미니 스커트나 진 펜츠 등과 매치하면서 현대적이고 캐주얼하게 제안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는 다수의 경우와 목선의 파임, 카라의 부착, 소매의 다양한 디자인 도입 등 서구적인 해석에 의한 형태 변형으로 나타남  |
| <p>장 신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복식의 형태나 문양의 다양한 활용에 비한다면 현대패션 디자인에서 그리 높은 비중으로 활용되지는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의 화려하고 다양한 전통적인 장신구를 인도풍 에스닉을 표현할 때 적극 활용 ▶ 또한 머플러나 가방등 현대화된 장신구에 인도의 전통적인 장식기법을 도입하여 제안하는 다수의 경우가 나타남  | |
| <p>비교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86점 ▶ 인도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 72.8% ▶ 서구복식에 인도 전통 이미지 가미 : 27.2% ▶ 전통복식의 착장방식의 간소화나 서구적인 복식과 접목시키는 착장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인도의 자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22점 ▶ 인도전통복식의 형태활용 : 17% ▶ 서구 복식에 인도 전통 이미지 가미 : 83% ▶ 서구적인 해석에 의한 인도 전통의 변형 | |

들의 디자인 경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영철 엮음, 백한을 외 옮김 (1999). 21세기 문화미리보기, 시각과 언어, p. 506.
- 2) 김민자 (1990). 한국 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 모색, 산업디자인 110, vol.21, p. 25.
- 3) Jose Teunissen (2005), *Global Fashion/Local Tradition*, Terra, pp. 47-51.
 - 4) 한국의 의류학계에서 사용되어온 민속복식은 민족복식과 전통복식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며, 사회계층의 제한이나 지역구별 없이 극적이 명확하고 또한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담고, 사회에 광범위하게 풍속화한 것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p. 20.
 - 5) 황춘섭 (1995).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pp. 104~105.
 - 6) 전영주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 14.
 - 7) 전영주 (1995). 앞의 논문, p. 11.
 - 8) 전영주 (1995). 앞의 논문, p. 11.
 - 9) 전영주 (1995). 앞의 논문, pp. 11-12.
 - 10) 전영주 (1995). 앞의 논문, p. 12.
 - 11) 유태순 외 공저 (2006).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신정, p. 247.
 - 12) 유태순 (2006). 앞의 책, p. 247.
 - 16) 홍나영 (2004). 앞의 책, p. 125.
 - 14) Francess Kennett (1994). *World Dress*, Reed International Books Limited, p.143.
 - 17) 홍나영 (2004). 앞의 책, p. 125.
 - 18) 홍나영 (2004). 앞의 책, p. 125.
 - 19) 황춘섭 (1995). 앞의 책, p. 89.
 - 18) 홍나영 · 신혜성 ·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교문사, p. 127.
 - 19) 전영주 (1995). 앞의 논문, pp. 27-30.
 - 20) 사리, http://www.firstview.com/04FW_Sabysachi_Mulherjee
출리, http://www.firstview.com/02SS_Jatin_Kochaar
가그라, http://www.firstview.com/01FW_AnandJon
쿠르다, http://www.firstview.com/03SS_Anant
장신구, http://www.firstview.com/03SS_Ashish_Pandey
 - 21) 하수정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이미지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p. 51.
 - 22) 하수정 (2004). 앞의 논문, p. 66.
 - 23) 사리, http://www.firstview.com/02SS_Etro
출리, http://www.firstview.com/00SS_Matthew_Williamson
가그라, http://www.firstview.com/01SS_Etro
쿠르다, http://www.firstview.com/00SS_Etro
장신구, http://www.firstview.com/02SS_Bluemarine